

“생각을 온몸으로 표현해요”

부산 최초 발도르프 초등학교 대연4동 사과나무학교

최근 들어 새로운 학교, 또 다른 교육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면서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창시된 발도르프 대안학교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남구에 생겨나 인기를 얻고 있다.

발도르프 대안학교인 사과나무학교(대표교사 이정국)는 지난해 12월 7일, 문화회관 근교인 대연동 757번지 일대에 총면적 660㎡(지상 2층) 규모의 아담한 학교를 준공과 함께 정식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감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초등 교육과정 및 유치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학년 1개 반으로 이루어진 초등부 학생은 개교 시 11명이 16명으로 늘었으며, 유치원생은 정원 20명이 마감되어 대기자가 기다리는 실정이다.

전 세계 1,000여 개가 있는 발도르프 학교는 1996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래 과천자유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학교 등 6개가 생겨났다.

초등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2학년은 이야기듣기, 산수, 형태그리기, 영어, 중국어, 유리드미, 정월일, 손공예를 하고, 3학년이 되면 세상창조 이야기, 농사와 집짓기, 축적이 더하여진다. 4학년 때는 동물공부를 시작하며, 5학년에는 식물공부, 6학년이 되면 광물과 물리학을 배우게 된다.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은 인간의 신체와 영혼의 깊은 성장 원리를 깨닫고 보고 발달 단계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적기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으로 ‘유리드미(eurythmy)’ 교육을 실천한다.

유리드미 교육은 그리스말로 ‘조화로운 리듬’의 뜻을 가진 신체예술로서 보이는 언어, 보이는 음악으로도 불린다. 걷기와 팔동작을 중심으로



사과나무학교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리듬과 느낌의 감성교육 실천

학생이 곧 삶과 학습의 주체

각 모음과 자음에 해당하는 동작이 있는데, 몸을 반듯하게 하고 영혼을 일깨운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교육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널리 쓰인다.

사과나무학교에서는 날마다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음악에 맞춰 생각과 심상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이 재량수업 하는 교실에 들어서자 수업시간이라기보다 놀이 시간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직접 만든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 만화를 그리는 아이, 뜨개질을 하는 아이들이 표정이 밝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3학년 홍성원 군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좋다. 특히 시험과 숙제가 없어서 마음 편하다.”라며 즐거워한다.

진병찬 교사(39세)는 “발도르프 교육은 생활의 ‘리듬’과 ‘느낌’을 중시하는 감성교육으로 제도권의 틀 밖에서 학생들이 삶과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며 “사과나무학교는 ‘행복’은 무엇인가,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이 학교 학부모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실을 잘 아는 현직 교사들이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걸 즐거워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걸 보고 만족해한다고 밝혔다.

사과나무학교에 입학하려면 일정 수준의 예약금 및 기부금과 월 55만 원의 수업료 및 별도의 방과 후 재량활동비가 든다. ☎622-7545

김정화 기자

토요휴업일에는 구화놀자학교에서 “놀자”

부산구화학교 무료 프로그램 운영

부산구화학교는 신나는 2·4주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의 하나로 구화놀자학교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토요휴업일에 올바른 여가문화를 지원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풍성하다. 제조놀이·공동체놀이·모듬놀이·자

유놀이·멀티스토리텔링 순으로 토요 휴업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다.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 이용우 교장은 “토요휴업일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돕고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신체활동과 협동활동을 통해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642-7100, www.pskuhaw.sc.kr

남부중·고등학교 학생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청소년, 성인(남·여)
- 모집인원 및 기간 : 제한 없음, 수시모집
- 장소 : 문현3동, 문현기동대 옆 건물(남부경찰서 자리에서 이전)
- 특정 : 수업료 무료, 교과서 제공
-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어 무료강좌도 실시합니다.
-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563401-01-186289
- 연락처(교무실) : 622-1205, 010-4544-4734

■수리학교 畵畵 -대연정보고등학교

글로벌시대 걸맞는 인재 키운다

중·일 대학과 결연 맺고 취업 활로 열어

해외유학 특별반·수능대비 특별반 운영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심각해진 요즘 전문계고교 졸업생의 취업시장도 점점 좁아져 졸업생의 사회 진출이 예전같지 않다. 이러한 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가 있다.

바로 남구 대연6동에 위치한 대연정보고등학교(교장 박일호)다.

대연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976년 대연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했다. 이후 2000년 현재의 대연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모바일콘텐츠과, 국제항만물류과, 애니메이션과, 관광경영과 등을 새롭게 개설해 명문 전문계고로 자리 잡고 있다.

대연정보고등학교는 최근부터 지방 전문계 고등학교로는 드물게 해외학교와의 자매결연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학교는 지난 2004년 중국 무순

사방고급중학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일본, 필리핀 등지의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 학교와의 자매결연 이후 6명의 학생이 유학을 했는데 그 중 졸업생 민수진씨는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연수를 하고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북경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중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밖에도 학교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으로 수능대비 특별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계고 특별전형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특기자 전형·전문계고 동일계전형 및 정원 외 5% 입학개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한 박조룡 학생은 “수업시간 50분이면 내신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권하는 자격증,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면

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전체 학생수 1,200여명 중 419명이 학비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방과 후 수업으로 유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해외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매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국등지의 자매학교에 정기적으로 탐방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매교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일호 교장은 “대연정보고등학교는 임진왜란 선무원종공신 인목재 박천추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그 뜻을 기려 설립한 학교이며 설립취지에 맞는 미와 교양을 갖춘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해외학교와의 자매결연사업은 학생들의 진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632-4252

김재우 인턴기자



박일호 교장이 학생들과 교정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러시안스쿨 개교했어요

최근에는 길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부산은 항구도시고 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는 물론 여행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남구에는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어 유학생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맞춰 지

난 9월7일 남구 대연3동에 러시아 스쿨이 문을 열었다.

1990년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후 매년 6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남·수영·해운대구에 걸쳐 1,000여명이 된다. 그들은 기업활동, 과학연구 활동 등으로 학생이나 사업가들이

러시아를 떠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였다.

이에 지난 2002년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중학교가 설립됐으며 부산에서도 러시아 스쿨이 개교하게 됐다.

러시안스쿨은 러시아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부산 최초 러시아정부 정식 교육기관 이 곳의 학생 러시아 국적 학생 30여명 초·중·고교 과정 이수 30여명과 교

사 14명으로 구성됐다. 부산에서 러시아인들을 위한 정식 교육기관이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단계를 1학년 11학년까지며 1학년~4학년은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9학년은 중학교, 10학년~11학년은 고등학교 과정과 같다. 스쿨의 시설은 건평 471㎡에 강의실 13개와 도서실, 컴퓨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빔프로젝터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한 화상강의도 가능하다. ☎ 624-9904

주영란 기자

전화금융사기 주의 하세요

1. 사기수법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우체국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반송되었다”고 전화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 “요즘 전화사기가 많은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한 뒤 곧이어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하여 “계좌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며, 금융회사 현금지급기(CD/ATM)로 유인한 다음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사칭기관	사기방법
경찰, 검찰, 법원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등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우체국, 택배회사	우편물·택배·카드 반송 등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등
전한국	전화요금 환급 등
조직폭력배	자녀납치, 가족 상해 협박 등
동창회, 종친회, 대학 학사지원부	동창회비, 종친회비, 대학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등

※ 환급금 지급 → 신용카드대금 연체 → 납치 협박 → 사건 연루 → 전화요금 연체 → 우체국 카드, 택배물 반송 등으로 사기방법을 계속 바뀌며가 범행

2. 대처요령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현금지급기(CD/ATM)에서 계좌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기범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

-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사후에 회수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 051-606-1716)



여러분도 병무★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이승억)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국민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복무(입영)사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병무★스타 제도를 신설하여 병무★스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무★스타’란 병역을 이행하는 군복무자의 부대자랑 및 그 가족·친구들간에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6개 테마별로 자유롭게 게재하도록 하고 「젊음의 도전, 나라사랑 그리고 긍지」가 가장 잘 표현된 사연을 선발하여 입상자에게는 5만691원의 특별휴가 또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소속부대에도 운동용품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스타 참가하기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2월 15까지입니다. 병무★스타는 6개 테마별로 각 1명을 선발하고, 테마별 병무스타 중 최우수 병무★스타 1명을 선발합니다.

※ 문의 : 병무인원상담소 ☎1588-9090/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27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2009.10.19 시행)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 알립니다

■현행(자동차등록령 개정 전)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한 한 민원인이 차량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무방문 변경 서비스」를 통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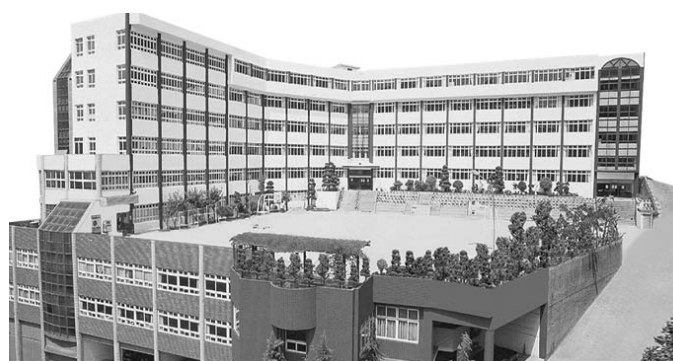
■변경(2009.10.19 자동차등록령 개정 후)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규정 의거, 2009.10.1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주민등록법」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단, 2009.10.18 이전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도록 안내(과태료 최고30만원)

어머니학생 大모집

중학교는 전액 국비지원



◆2년 만에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 부산전지역 스쿨버스 운행
- 10월 25일부터 선착순 모집
- 주간 3학급, 야간 1학급
-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가능
- 중학교는 교과서 무료지급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능(고등학교 과정에 개설)

부경보건고등학교병설성인여자중·고등학교

문의전화 : 261-4611~3 (http://www.queen.hs.kr)